

‘치유·생태 중심’ 순천만 갯벌치유관광플랫폼 조성

市, 320억 투입...마을스테이 등 운영 지속가능 지역경제 모델 발전 전략

순천시가 순천만의 생태적 원시성을 살리고, 자연과 조화되는 치유 거점으로 갯벌치유관광 플랫폼 조성에 나선다.

9일 순천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 중 ‘한국형

웰니스 관광지대’ 조성 테마사업으로 국비 100억원을 포함, 총 3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순천시 교량동 복원습지 인근에 조성된다.

순천시는 올해 하반기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2026년 하반기 착공해 2027년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갯벌치유관광플랫폼은 단순한 관광 시설이 아닌 ‘치유와 생태의 중심’이라는 미래 도시전략의 핵심 거점으로 구축된다.

특히 순천시는 람사르협약의 핵심 원칙을 설계 전 과정에 반영해 순천만이 가진 원시 생태성을 훼손하지 않고 건축물과 자연의 조화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건물 또한 자연을 방해하지 않는 건축을 기본 원칙으로 삼고, 습지 경관을 해치지 않는 친환경 자재를 활용해 최소한의 구조로 공간을 구성한다.

핵심 프로그램은 자연 기반 치유 콘텐츠다. 갯

벌 명상, 음식 치유, 마을스테이, 탐조 및 사운드 워킹 등 방문객의 상태와 목적에 따라 맞춤형 치유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운영한다.

또한 이번 플랫폼을 지역 산업과 긴밀히 연결해 체류형 관광 활성화는 물론,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도모할 계획이다.

농산물, 숙박, 음식, 문화콘텐츠 등 지역 자원을 연계한 통합 관광 모델을 통해 새로운 관광

수요를 창출하고, 치유 전문가 양성, 로컬 비즈니스 확대, 관련 인프라 개발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모델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전략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갯벌치유관광플랫폼은 순천만의 자연을 존중하고, 회복의 에너지를 품은 공간이 될 것”이라며 “치유 산업의 메카이자, 미래형 관광도시로 도약하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순천=정기기자



담양군과 담양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인 최근 봉산면 담양통합RPC에서 '2025년 담양쌀 프랑스 수출 선적식'을 개최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담양군 제공〉

담양쌀, 2년 연속 프랑스 수출길 올라

18t 선적...200t 수출 목표

담양군의 대표 농산물 ‘담양쌀’이 2년 연속 프랑스 수출길에 올랐다.

9일 담양군에 따르면 최근 담양군과 담양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인 봉산면 담양통합RPC에서 ‘2025년 담양쌀 프랑스 수출 선적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정철원 담양군수, 이규현 도의원, 장명영 담양군의회의장, 김범진 농협중앙회 총회 이사, 양남근 수북농협장, 이종혁 담양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대표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프랑스 파리로 ‘풍요로운 담양쌀’ 18t

이 선적됐다.

담양쌀은 2023년부터 프랑스를 포함해 체코, 미국, 베트남 등지로 수출되며 해외 시장 개척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는 프랑스 단독으로 200t 수출을 목표로 하며, 수출액은 약 46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담양군은 물류비, 포장재 등 약 5억 1천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담양쌀의 안정적인 수출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수출은 NH농협무역을 맡았으며, 현지 수입은 프랑스 파리에 본사를 둔 ‘에이스푸드’가 담당한다.

에이스푸드는 프랑스 내 40여개 아시아인 푸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여 곳의 한식당에 식자재를 공급하는 유통 전문 기업이다. 담양쌀의 품질에 높은 만족을 보이며 올해도 수입 계약을 이어가게 됐다.

정철원 군수는 “담양쌀의 품질이 유럽 시장에서도 인정받고 있다”며 “농가 소득 향상과 쌀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 시장 개척과 행정적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1년 설립된 담양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은 관내 7개 농협이 참여하는 조직으로, 담양통합RPC를 중심으로 친환경 및 일반 쌀의 도정·유통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쌀 매출은 약 340억원으로, 학교 급식과 가공 업체, GS리테일·쿠방 등 대형 유통 업체에 안정적으로 쌀을 공급하고 있다.

/담양=정승균 기자

아동 독서문화 거점 ‘광양꿈빛도서관’ 개관

자율창작·교육 공간 꿈뜨락·책뜨락 호응 지상 2층 규모 보유 장서 1만4천여권

광양시가 지역 아동의 독서·창의 활동을 위한 ‘광양꿈빛도서관’을 정식 개관했다. <사진>

9일 광양시에 따르면 광양꿈빛도서관은 광양시 마동근린체육공원 인근(무동길 97)에 위치하며, 연면적 1천441.03㎡의 지상 2층 규모로 조성됐다.

전체 공간은 개방형 구조로 설계돼 아이들이 자유롭게 책을 읽고 활동할 수 있도록 했으며, 1층에는 어린이 자율 창작공간인 ‘꿈뜨락’과 교과연계 도서, 학습만화, 어린이 잡지가 비치됐다.

2층에는 다목적 열린 교육공간인 ‘책뜨락’과 동화 및 그림책 공간이 마련돼 있다. 현재 보유 장서는 약 1만4천172권이다.

도서관은 정식 개관 전인 지난 5월12일부터 6월4일까지 시범운영을 실시했다. 이 기간 동안 일평균 300여명, 총 4천여명이 방문해 지역사회



의 뜨거운 관심을 입증했다.

특히 광양시가 처음 시도한 자율 창작 공간인 ‘꿈뜨락’은 어린이와 학부모 모두에게 높은 호응을 얻었으며, 체험 프로그램 접수 시작과 동시에 마감되는 등 인기를 끌었다.

김미라 도서관과장은 “꿈빛도서관은 아이들이 스스로 탐색하고 경험하며 배우는 공간”이라며 “특히 자율창작공간 ‘꿈뜨락’은 독서를 기

반으로 어린이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내는 공간으로, 향후 운영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밝혔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꿈빛도서관이 학교와 지역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의 독서문화 확산과 아동친화도시 실현에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광양=양홍렬 기자

보성군, 월례조회 대신 ‘달 모임’ 개최 호응

직원 소통·지역경제 활성화

보성군은 9일 “매월 초 전 직원이 참여하는 ‘보성 달 모임’을 개최하며 기존의 형식적인 월례회를 대체하는 소통의 장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보성 달 모임’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자연스럽게 공유할 수 있는 조직 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기획됐다.

달 모임은 ▲부서 간 업무 공유 ▲직원 자유 발언 ▲군수 메시지 전달 등을 통해 군정 방향과 비전을 함께 나누고, 직원 간 공감대와 유대

감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이번 ‘6월 보성 달 모임’에서는 지역 농가에서 생산한 토마토와 오이를 직원들에게 제공, 직원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응원함과 동시에 지역 농산물 소비를 장려하는 뜻 깊은 행사가 마련됐다.

<사진>

직원 자유발언 시간에는 세계 환경의 날(6월5일)을 맞아 기후환경과에서 ‘환경 보호의 중요성과 일상 속 실천 방안’에 대해 발표해 직원들의 환경 인식을 높였으며, 재무과에서는 향후 보성군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보성군 복합커뮤니티센터’의 추진 배경과 주요 시설 등을 소개하며 군정 비전을 공



유했다.

보성군은 달 모임을 통해 매월 지역 상권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다양한 품목의 쿠폰 추천 이벤트를 추진하고 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활기차고 유쾌한 조직 문화가 더 큰 창의력과 협업을 끌어낼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보성=임병연 기자

곡성 ‘면접 정장 무료 대여 지원’ 확대

신분증 지참 일하잡(JOB)센터 방문

곡성군은 9일 “군 일하잡(JOB)센터의 ‘면접 정장 무료 대여 지원사업’을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면접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들의 취업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부터는 면접 정장 상하의, 셔츠, 블라우스, 넥타이 등의 품목과 사이즈를 다양하게 준비해, 구직자들이 필요에 맞는 면접 복장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게 됐다.

이용 대상은 신청일 현재 곡성에 주소지가 있거나 곡성 소재인 대학 혹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이상의 구직자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정장을 대여하려면 신분증을 가지고 곡성읍 비발인덕2층에 있는 곡성군 일하잡(JOB)센터에 방문해 면접정장 대여 지원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대여 기간은 신청일 기준 최대 7일이며 1인당 연간 5회다.

한편 곡성군 일하잡센터에는 면접 정장 대여 외에도 면접에 대비한 1대1 모의 면접, 개인별 커리어 컨설팅, 면접 이미지 스타일링 등 심층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곡성 관내 기업에 면접을 보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면접비를 지원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곡성군 일하잡센터(061-362-8748)로 문의할 수 있다.

/곡성=김영필 기자



장흥군 천관문학관에서 열린 ‘3대 가족정원 만들기’ 행사에서 참가 가족들이 수국을 식재하며 가족사랑의 의미를 되새기고 있다.

〈장흥군 제공〉

장흥군, 세대 소통 ‘3대 가족정원 만들기’ 눈길

수국 1천680여 그루 식재

장흥군은 “최근 천관문학관 일원에서 ‘The 푸른 전남만들기’ 실현과 세대간 소통문화 확산을 위해 ‘3대 가족정원 만들기’ 행사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사)숲속의전남이 주관하고 전남도와 장흥군이 후원했다.

행사에 참여한 3대 가족과 (사)숲속의 전남 회원·지역 주민 등 150여명은 가족사랑과 노벨 문학도시 장흥 발전의 의미를 담아 수국정원을 조성하고 가족 이름표도 달았다.

참석자들은 수국의 꽃 하나하나를 작지만 여러개가 모여 탐스러운 꽃다발을 이루듯이 조부

모, 부모, 손자·손녀는 가족의 행복을 기원하는 의미의 수국 1천680여 그루를 정성껏 심었다.

행사 참가자는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해 가족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았다”며 “참석한 가족 모두 수국처럼 더없이 풍요롭고 행복한 가족사랑이 영원하길 기원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행사 후에는 자발적으로 나무를 심고 가꾸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동백, 홍가시 등 묘목 200여 그루도 나눠줬다.

김성 장흥군수는 “효의 사랑, 공존의 의미가 깃든 살아 있는 정원”이라며 “장흥이 문화와 정원이 공존하는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주민이 중심이 되는 녹색문화 실천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장흥=노형록 기자

화순군, 민간관광안내소 10개소 선정

홍보물 진열대 설치 등...7개월간 운영

(재)화순군문화관광재단은 9일 “2025년 민간관광안내소 총 10개소를 최종 선정하고, 본격 운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 상권과 연계된 관광 정보 허브를 조성해 관광객 편의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에 선정된 10개 민간관광안내소는 관내 카페, 음식점, 숙박시설 등 다양한 업종으로 꾸려졌다.

민간관광안내소는 오는 12월31일까지 약 7개월간 운영되며 ▲홍보물 진열대 설치 ▲화순군 관광홍보물 비치 ▲관광 정보 제공 등 안내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재단은 안내소 운영자에게 ▲운영 관련 매뉴

얼 제공 ▲주거적인 관광홍보물 제공 ▲홍보 콘텐츠 제작 및 현장 점검 등 체계적인 운영 노하우를 지원할 계획이다.

구종현 (재)화순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는 “민간관광안내소는 주민이 참여하는 생활밀착형 관광안내 플랫폼”이라며 “관광객에게는 친근한 정보 공유의 장이 되고, 지역 업소에는 새로운 관광 수요 창출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재단은 지난해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올해 본격적인 운영에 착수했으며, 향후 민간관광안내소를 기반으로 한 연계 프로그램 및 관광 네트워크 강화할 방침이다.

선정된 2025년 화순군 민간관광안내소에 대한 정보는 (재)화순군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에 추후 업데이트될 예정이다. /화순=이병철 기자